상이군경회 '비자금 장부' 광주북부경찰, 수사 확대

대한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의 공금 횡령과 '비자금 장부'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은 이 단체에 지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각종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북부경찰은 지난 8일 여행사 관계자를 불러 지난해 광주지부 회원들이 '전적지 순례'로 홍콩~태국~마카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둘러본 경위와 그 비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2~13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부 간부 김모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나, 김씨는 "단순한 사무착오로 빚어진 일"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광주지부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광주 도시철도공사의 차량 청소 용역권을 따낸 사실을 확인했다. 지부 측은 지하철 차량 11대의 광택·방역·청소 작업을 맡고 있으며, 한달 평균 1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시민단체에서 모 단체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광고를 다른 보훈단체 2곳과 공동명의로 일간지에 게재했으며, 이후 특별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회원 2천500여명으로 수익금·장애인 기금 등으로 매년 15억원 내외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연간 7천만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법조계 등에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부 간부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L의원 측은 "후원금으로 돈을 받았으며 영수증 처리를 해줬다"고 말했으며, K 전의원 측은 "3년 전 일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법인카드 의혹' 보도 관련 언론사 회장, 타사 기자 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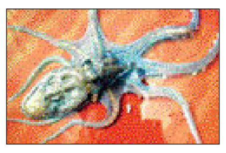
광주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시민의소리'는 9일 회사 사무실에 허락없이 침입해 기자를 폭행한 광주 A신문사 P회장 등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시민의소리' 이 모(38)기자는 " 광주시 한 자치단체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에 대한 보도에 불만을 품은 P회장이 다른 5명과 함께 8일 오후 2시30분께 서구 치평동 사무실에 들어와 '취재원이 누구냐'며 1시간30분 동안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떠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소리'는 이와 관련 9일 '시민의소리 침탈과 테러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만적인 테러행위가 동종 언론사의 고위간부들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에 대해 침통한 심정'이라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신안 강대용씨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도전 15년

"낙지 양식의 꿈  포기 할 수 없다"

낙지 양식을 꿈꾸며 살아온 어민이 있다.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강대용(56)씨. 그는 찰지고 너른 장산도의 갯벌에서 지난 27년간 낙지를 잡아온 사람이다. 15년 전 어느 날, 그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낙지가 솟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양식에 도전했다. 처음엔 직접 잡은 낙지를 대야에 넣고 생존 시간을 늘려보는 방법을 썼다.

주위에선 "제정신이냐"며 만류했다. 낙지 양식은 무모해 보였고, 그는 이미 집 앞 갯벌에서 잡아올린 낙지로 연간 7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갑부였기 때문이다. 수입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투자했지만 '혼자'만의 실험은 실패만 거듭했다.

수정~부화 단계까지 성공
먹이체계 규명 못해 어려움
행정지원 끊겨 나홀로 실험

강씨의 계획은 지난 2004년 신안군으로부터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체계화됐다. 집 근처에 30평 규모의 종묘 배양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 3평짜리 수조(깊이 70㎝) 6개를 시설했다. 그해 12월, 어미 낙지 200마리를 배양장에 넣었다.

처음 시도는 바다 갯벌로 자연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염으로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자, PVC 파이프·문어 통발을 어미와 알이 기거할 '집'으로 사용했다. 일 년 내내 종묘 배양장의 빛을 차단한 후, 수조에서 한번 거른 바닷물과 상온 15도의 온도, 적당량 산소, 생 바지락 먹이를 제공했다.

결과는 집단 폐사. 어미는 2005년 3월, 7천 개의 알을 낳았지만 산소결핍으로 대부분 죽어갔다. 어렵사리 생존한 100여 마리의 어린 낙지는 인근 마을 어장에 방류했다. 10월에도 400마리의 어미를 수정시키데 성공했으나, 수정란 1만5천 개 중 1만2천여 개가 죽었다.

알을 깨고 나온 어린 낙지가 70여일이 지나도록 크지 않은 점도 의문이었다. 일부 수정란은 가스가 차며 황색으로 변해 버렸다.

신안군 관계자는 "일단 수정을 통해 알을 낳고, 부화하는 단계까지는 성공했는데 부화한 어린 낙지가 크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어린 낙지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에 대한 먹이 사슬이 체계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식이 수포로 돌아가자 신안군은 올해 종묘 구입비로 책정한 2천만원의 집행 계획을 보류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 시달리던 아내는 뇌일혈로 쓰러졌다.

강씨는 그러나 결코 중단할 수 없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 실험에 나섰다. 은박지로 둘러싼 스티로폼 원통(길이 30㎝)을 '자궁'으로 삼고, 그 밑에 돌을 깔아놓은 것이다. 올 4월 현재, 강씨가 고안한 배양장에는 70여 마리의 낙지가 알을 낳고 휴식 중이다.

"웰빙 열풍으로 가뜩이나 몸값이 높아진 낙지가 최초로 양식에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안 갯벌은 몸값이 부쩍 뛰어오를 것입니다. 저는 꿈을 쏘아올리고 싶어요."

그는 오늘, '반쯤의 성공'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섰다. 낙지잡이 어민의 양식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15년 째 낙지 양식에 도전 중인 강대용씨가 스티로폼 원통을 통해 수조안에 있는 낙지와 수정란을 관찰하고 있다. 강씨는 올해 수조 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스티로폼 소재 원통을 개발했고,그곳에 낙지 알을 낳도록 했다.
▶ 수정된 낙지알.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파업 불참' 동료들에 폭력 덤프연대 노동자 5명 구속

광주 광산경찰은 9일 공사 현장을 돌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덤프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등)로 '덤프연대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오모(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공사현장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덤프기사들의 트럭에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깬 혐의다. 이들은 또 함평군 월야면 외치재 등에서 덤프차량 5대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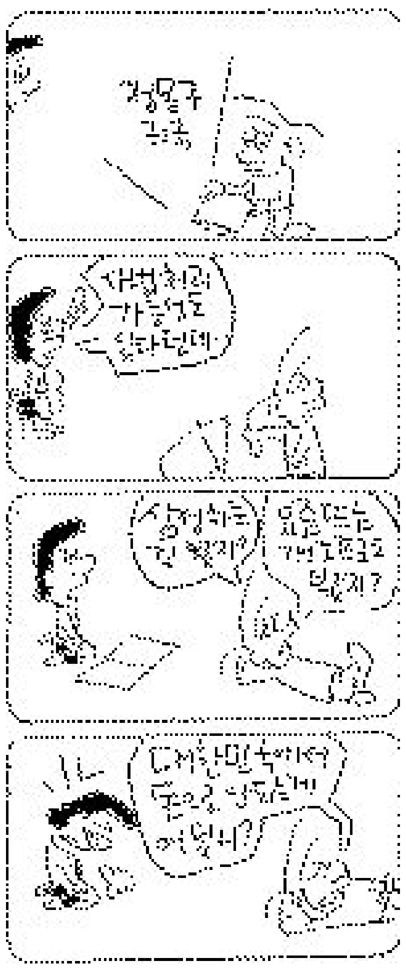
한편 '덤프연대 광주·전남지부'조합원 300여명은 유가 보조금 지급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광산구 극락강 광신대교 인근에 차량 100여대를 세워놓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아들 폭행치사' 아버지 구속

광주 동부경찰은 6살 난 자신의 아들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서모(32·광주시 동구 학동)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귀가, 아들(6)을 회초리로 때리고 벽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임주형기자 jhlim@

나원참 〈6800〉 김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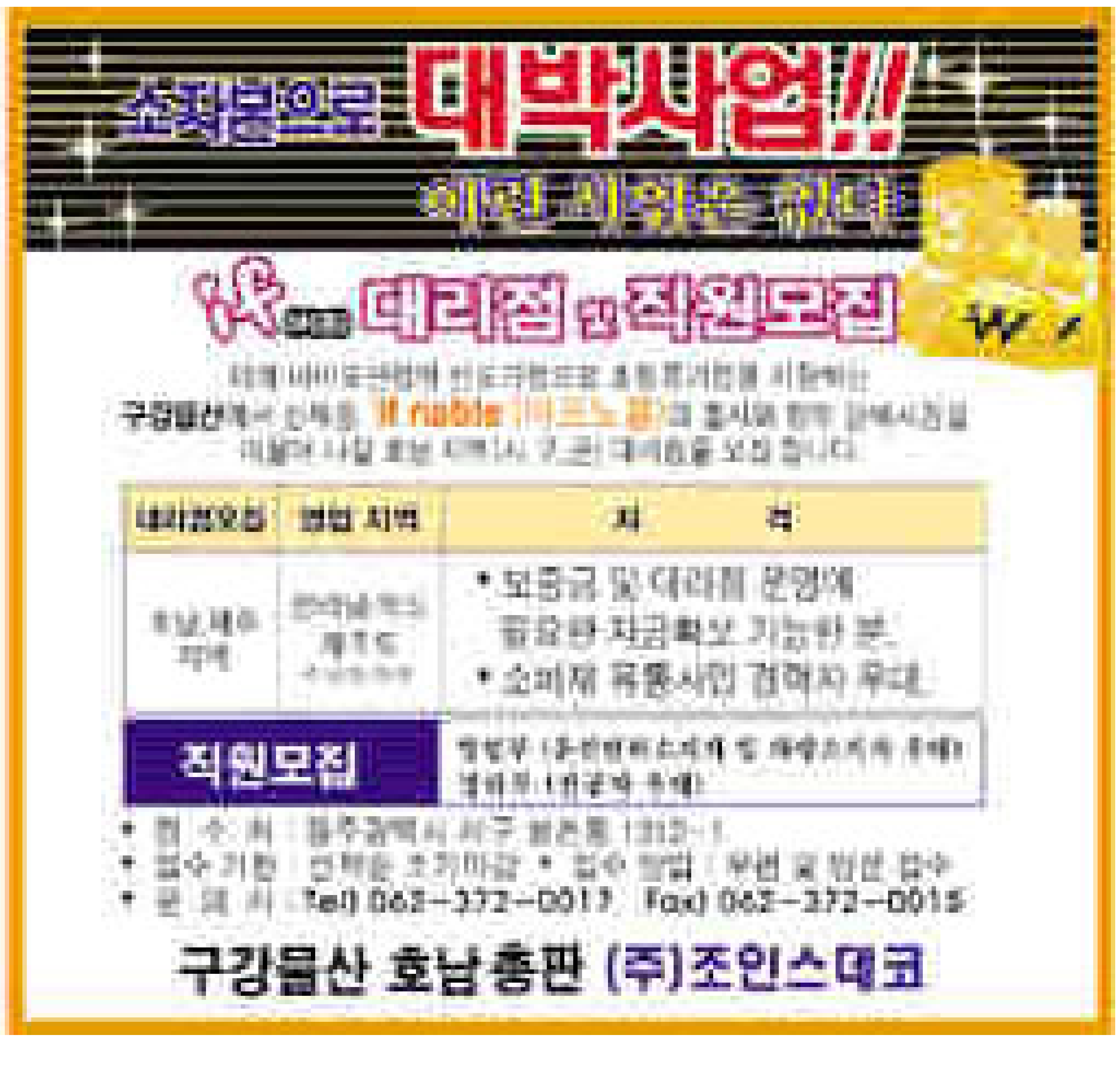
조충훈 순천시장 10년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기표 검사는 지난 7일 박물관 건축사업 등과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충훈(53)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9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8일.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술취한 강도 "나 감방으로 돌아갈래"

쌍나팔

○…30대 편의점 강도가 범행을 저지른 뒤, 술을 마시고 또 다른 편의점을 털려다 출동한 경찰에 덜미.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6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S편의점에서 여종업원 이모(21)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뒤, 다시 동구 금남로 S편의점을 털려 했지만 술에 취해 종업원들과 승강이만 벌이다 붙잡힌 것.

○…김씨는 경찰에서 "3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면서 "차라리 '감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진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